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A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ibrary Anxiety and Personality Traits

오 의 경(Eui-Kyung Oh)*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불안(Library Anxiety)
 2.2 5요인 성격 유형 특성 (Personality Traits)
 2.3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
 3.2 데이터 수집 방법
 3.3 데이터 분석 방법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4.1 응답자 기초 통계
 4.2 도서관 불안 측정 결과
 4.3 성격 유형 측정 결과
 4.4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과의 상관관계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9명의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LAS)과 성격 유형(한국형 BFI)을 조사, 측정하였다. 도서관 불안은 2.57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기계적인 장벽, 정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 지식에 대한 장벽, 도서관 안락함의 순으로 도서관 불안이 높았다. 성격 유형은 친화성이 3.65점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의 순서였다.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 수준도 높고, 특히,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향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연구에서는 다른 개인성향 변인을 사용한 연구, 개인 맞춤형 도서관 불안 해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도서관 불안의 측면 보다는 정보 불안의 측면에서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ibrary anxiety and personality traits. The library anxiety (LAS) and personality traits (the Korean BFI) were measured against 49 freshmen in the university. The library anxiety was average 2.57, 'mechanical barriers' score was the highest(2.91), subsequently was 'affective barriers' 2.72, 'barriers with staff' 2.49, 'knowledge of library' 2.42, and 'comfort with the library' score was the lowest(2.38). The personality traits had the tendency that 'agreeableness'f actor(3.65) is higher than other 4 factors, 'neuroticism'(3.48), 'extraversion'(3.27), 'openness'(2.85), and 'conscientiousness' (3.26). It found that 'comfort with the library' and 'neuroticism' were correlated statistically and the personality traits have an effect on library anxiety.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improving the measurement tool of information anxiety, using other personality traits variables in similar researches, and developing personalized library anxiety resolution programs.

키워드: 도서관 불안, 성격 유형, 5요인 성격, 직원으로 인한 불안, 정서적 불안, 도서관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Library Anxiety, Personality Traits, Big Five Inventory, Barriers with Staff, Affective Barriers, Comfort with the Library, Knowledge of Library, Mechanical Barriers, LAS, BFII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ohspace@paran.com)
논문접수일자: 2012년 4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199-217,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199]

www.kci.go.kr

1. 서 론

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그 영향으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 발전된 정보 기술은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수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축감, 두려움,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 시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이이다. 특히 정보와 지식이 삶의 근간이 되는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해결이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서관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사서들의 실무적인 경험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었다(Melon 1986). 정보 기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불안 심리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안 심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불안의 정도 또한 과거 보다 덜 하지는 않다.

정보의 출처, 형태 및 재현 방법은 정보 기술에 의하여 다양해졌지만, 정보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불건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양산되어 정보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건전하고 신뢰할 정보가 유통되는 가장 유력한 핵심기관이고, 사서들은 이용자에게 정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가 삶의 근간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사서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정보를 추구・탐색・획득・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 발전과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도서관 불안은 정보활용교육 등 적절한 교육과 자극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센터에서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도서관 및 정보에 대한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등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전공(주제), 학년, 연구(학습)과제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도서관 불안은 개인의 불안 심리의 일종이므로, 도서관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성향 또한 고려되어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Jiao 등에 의하여 수행된 도서관 불안에 관한 몇몇 연구들에서, 개인이 가진 성향과 기질(학습습관, 자기인지능력, 사회적인 상호의존성, 독해력/어휘력,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태도)이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정도와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향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실제로 증명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도서관 불안 해소 방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보편적인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특정적인 환경에서의 개인의 특성과 도서관 불안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로, 개인의 성향과 도서관

www.kci.go.kr

불안 간에 관계가 있음을 더욱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요인과 도서관 불안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정의한 인간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성인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이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성격 유형과 도서관 불안은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도서관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도출해 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 대학의 신입생들로 선정하였다. 신입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본격적인 대학생활에 앞서 신입생들의 도서관 불안과 도서관 불안과 관련된 성격 요인을 분석하고, 관계의 특성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사용하는 측정 도구로는 이미 잘 알려진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LAS(Library Anxiety Scale)'와 성격 유형 분석 도구 '한국형 BFI(Big Five Inventory)'를 사용하였고,[1] 각각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을 측정 조사한 후, 두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성격 유형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불안과 관련하여, 유사한 측정을 하였던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도서관 불안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도서관 이용력(도서관 방문 빈도,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빈도)이 도서관 불안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도서관 불안 해소 방안이 포함된 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대학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도서관 불안이 적절하게 해소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주요 개념인 '도서관 불안'과 '5요인 성격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구와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로 '도서관 불안과 개인성향에 관한 연구', '5요인 성격 특성 연구와 측정 도구'들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2.1 도서관 불안(Library Anxiety)

도서관 불안(Library Anxiety)이란 Mellon(1986)에 의하여 처음으로 논의된,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적 현상이다. 당시 Mellon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담당자로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냈으며, 이러한 느낌을 '도서관 불안'이라

1) 측정 도구들(한국형 BFI, LAS)에 관한 설명은 3.1에서 다룬다.

www.kci.go.kr

고 명하였다. Mellon(1986)의 연구는 질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무려 6,000여명의 학생이 그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75~85%) 도서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의 원인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지식 부족에 대한 상대적인 무능력'과 '열등감정' 등으로 밝혀졌다. 이 후, 1992년 Bostick(1992)에 의하여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인 LAS(Library Anxiety Scale)가 제작되었고, 동시에 도서관 불안이 측정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도서관 이용상 가장 중요한 현상들 중 하나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문헌정보학 주제 영역이기도 하다.

2.2 5요인 성격 유형 특성(Personality Traits)

성격 유형 특성(personality traits)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성으로,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 양식으로 정의되어 왔다(Phares 1984).

심리학에서, 성격이론가들은 의하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차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성격 유형 특성을 찾아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성격 경향(혹은 성격 유형, 성격 특성)은 인간의 적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잠재성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적응은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 경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왔다(Costa & McCrae 1992). 또한 개인의 타고난 기본적 경향성인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관, 태도, 능력, 역할, 관계 등과 같은 개인의 독특한 적응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일반적으로 5요인 성격 유형은 문화를 초월하여 발견되며, 강력한 예측타당도, 평정자간 일관성, 유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심리학의 성격이론 분야에서는 성격 유형 특성이 대체로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5요인 구조설(Big Five Structure/Five Factor Mode)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 5요인은 학자 간에 명명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체로 '신경증(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지성)', '친화성', '성실성(성취에 대한 의지)'을 의미한다. 5요인 성격 유형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1〉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5요인 성격 유형 특성은 인간의 적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한 요인들로, 도서관 불안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5요인 성격 유형 특성

5요인 성격 유형	특성
신경증(neuroticism)	정서적 안정성,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성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의 교제, 상호작용성,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개방성(openness)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성실성(conscientiousness)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친화성(agreeableness)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www.kci.go.kr

2.3 선행연구

2.3.1 도서관 불안과 개인성향에 관한 연구

도서관 불안은 Melon(1986)에 의하여 확인되고, Bostick(1992)에 의하여 그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이후 꾸준히 많은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도서관 불안의 측정, 도서관 불안 도구의 개발, 도서관 불안과 영향 요인의 관계 분석 등이 주요한 연구 흐름인데,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도서관 불안과 영향 요인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의 경우, Jiao, Onwuebuzie, Collins(Jiao & Onwuebuzie 1999; Jiao & Onwuebuzie 2001; Jiao & Onwuebuzie 2002; Jiao & Onwuebuzie 2003) 등에 의하여 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국내의 경우, 최근 오의경(2011)의 연구가 있다.

Jiao와 Onwuebuzie(1999)는 자기인지능력(self-perception)과 도서관 불안간의 관계 분석을 14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기인지능력 측정 도구로 SPPCS(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를 활용하였는데, 본래 SPPCS는 13개 하위영역, 총 5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3개 하위 영역 중 연구에 적합한 7개 하위영역(독창성 인지, 지적능력 인지, 학술적 경쟁력 인지, 직업 경쟁력 인지, 외모 인지, 사회적 수용력 인지, 자기가치 인지)만 사용하였다. 도서관 불안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도서관 불안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장벽 영역'과 자기지각능력 하위 영역 중 '지적능력 인지', '학술적 경쟁력 인지', '독창성 인지'의 세 영역에서, 그리고 도서관 불안의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과 '학술적 경쟁력 인지'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자기인지능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Jiao와 Onwuebuzie(2001)는 133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습습관(study habits)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아니요'로 답하는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SHI(Study Habits Inventory, Jones and Slate 1992)로 학습 습관을 측정하고, LAS로 도서관 불안을 측정한 후,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좋은 학습습관이 도서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SHI 점수가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ao와 Onwuebuzie(2002)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만한 지식, 기술, 경험, 자신감 등을 갖추지 못하여, 도서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불안감은 주로 개인적으로 치욕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인지하는 등 주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라고 하였다. 개인의 문제들을 개인의 '협동 성향(cooperative)', '경쟁 성향(competitive)', '이기적 성향(individualistic)'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상호의존성(social interdependence)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서관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1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LAS와 SIS(Social Interdependence Scale)로 각각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협동 성향이 강할수록 도서관 불안감을 덜 느끼고, 특히 도서관 불안감의 하위 영역 중에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www.kci.go.kr

Jiao와 Onwuegbuzie(2003)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도서관에서 제대로 획득하여, 학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해력/ 어휘력이 사전에 완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해력/ 어휘력과 도서관 불안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불안 척도인 LAS와 더불어 어휘력 80문항, 독해력 38문항 총 118문항으로 구성된 Nelson- Denny Reading Test를 사용하여, 45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과 독해력/ 어휘력에 대한 측정을 하였고,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도서관 불안의 하위 영역 중,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영역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도출되었다.

오의경(2011)은 99명의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가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스스로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도서관 불안이 적었으며,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가 인지 문항 중 '정보접근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 '정보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자신감 결여' 문항에서 인지 수준이 떨어질 때 특히 도서관 불안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적 지식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도서관 불안과 개인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성향에 따라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도서관 불안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어왔으나, 주로 특정 환경과 관점에서의 성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일반적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불안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이전의 관련 연구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표 2〉 도서관 불안과 개인성향에 관한 연구

연구	측정 변인	연구대상	측정도구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
Jiao & Onwuebuzie (1999)	자기인지능력: 독창성/지성/학술경쟁력/직무경쟁력/외모/사회적 수용력/자기가치	대학원생 148명	SPPCS + LAS	- 지적능력/학술경쟁력/독창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도서관 불안은 감소한다. - 학술경쟁력 점수가 높을수록 도서관 지식으로 인한 도서관 불안은 감소한다.
Jiao & Onwuebuzie (2001)	학습습관 63가지	대학원생 133명	SHI + LAS	- 학습 습관이 좋을수록 도서관 불안은 감소한다.
Jiao & Onwuebuzie (2002)	사회적상호의존성: 협동/경쟁/이기심	대학원생 115명	SIS + LAS	- 사회적상호의존성 요인들은 도서관 불안의 하위 영역인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다.
Jiao & Onwuebuzie (2003)	독해력/어휘력	대학원생 45명	NDRT + LAS	- 독해력과 어휘력 점수가 높을수록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의 도서관 불안이 감소한다.
오의경 (2011)	정보활용능력 자가 인식태도 11가지	대학 1학년생 99명	오의경(2005) + LAS	- 정보활용능력인지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이 감소한다.

www.kci.go.kr

자 한다. 비교의 목적은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불안 점수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 불안이라는 요소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심리 경향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LAS등과 같은 척도는 개발 수정 보완되고 있지만, 그 점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나 기준이 없으므로,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전의 장혜란, 오의경 연구(2006), 오의경 연구(2011)와 연속선상에 있는 후속연구로써, 도서관 불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장혜란, 오의경 연구(2006)는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고, 도서관 불안에 관련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도서관 불안에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밝혔던 연구이며, 오의경 연구(2011)는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개인의 심리요인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가인지태도를 설정하고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혜란, 오의경 연구(2006)의 후속 연구이자 도서관 불안과 개인차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이지만, 오의경 연구(2011)는 개인차의 요인을 도서관 환경에서 추출한 것이고, 본 연구는 개인 성격 유형특성에서 추출한 점에서는 차별된다. 이전 두 개의 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 3〉과 같다.

2.3.2 5요인 성격 특성 연구와 측정 도구

많은 성격이론 연구자들은 5요인 성격 유형 특성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성격 특성의 실재를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측정도구들 중에

〈표 3〉 이전 관련 연구와의 비교(연구 목적, 측정 도구, 결과 등)

구분	연구 목적	측정 도구	주요 결과	비고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측정/ 도서관 불안 요인 추출	LAS	- 도서관 불안 점수: 2.55 - 도서관 불안은 표본이 갖는 외적인 환경(성별, 학년, 도서관이용력 등)에 대하여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음. 즉,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	-
오의경 (2011)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 검증/ 개인적 요인으로 도서관 환경의 정보리터러시 인지 태도를 측정함.	LAS +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가 인지 수준	- 도서관 불안점수: 2.47 -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가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은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수준에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있음).	- 장혜란, 오의경(2006)의 후속 연구: 개인차 변인으로 정보활용능력 자가 인지 수준을 설정함. - LAS의 5영역 중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은 제거하여 사용함.
본 연구 (2012)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 검증/ 개인적 요인으로 성격 유형을 검사하여 측정치를 연구에 사용함.	LAS + 한국형 간략 BFI	- 예측 결과: 도서관 불안과 5요인 성격 사이에 상관관계 존재. 5요인 성격에 의한 유형별 도서관 불안 해소 프로그램이나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함을 증명.	- 장혜란, 오의경(2006)의 두 번 째 후속 연구: 개인차 변인으로 성격 유형을 설정함.

www.kci.go.kr

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NEO-PI-R(Costa & McCrae 1992)이다. 이 도구는 모두 5요인, 30개 하위 요인, 24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한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격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지만, 임상이 아닌 일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문항이 많아서, 응답자가 문항에 답하면서 피로를 느끼게 되어 주의력을 잃고, 객관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간편한 도구의 개발에 주력해 왔고, 25문항의 The Big Five Locator(Howard, Medina, & Howard 1996), 44문항의 BFI(The Big Five Inventory; John & Srivastava 1999), 10문항의 TIPI(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Gosling, Rentfrow, & Swann 2003), 50문항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Goldberg 1999) 등이 개발되었다. 이들 중에서, BFI는 짧은 시간에 충분한 수준에서 성격 유형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번안하고 축약하여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구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단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근본적인 타당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은 BFI를 번역한 후, 동일성 평정,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축약된 한국어 BFI를 제작하였다.[2] 이것은 임상적 사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타당화된 유용한 도구이다.

최근의 성격 5요인 관련 측정 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로는 성격 5요인과 산업 장면에서의 직무 수행 준거, 학업 수행 준거, 학교생활적응, 진로, 지능, 학업소진,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우울, 발달과업 등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으며, 최근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Bostick의 LAS(Library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고, 성격유형 측정을 위해서 한국형 BFI(Big Fiv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 이용 경험(방문빈도, 홈페이지 접속 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사용된 두 가지 측정도구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 LAS(Library Anxiety Scale: Bostick 1992)

도서관 불안의 측정도구로는 Bostick(1992)의 LA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LAS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사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5개의 하위 영역 즉,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15문항), '정서적 장벽'(12문항), '도

2) BFI 타당화 과정은 3.1.2에서 다루고자 한다.

www.kci.go.kr

서관의 안락함'(8문항), '도서관에 대한 지식'(5문항), '기계적 장벽'(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부 문항의 경우,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들은 크론바하 알파테스트에서 알파 계수가 0.80, 2-3주 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 계수가 0.74로 측정되는 등 신뢰도나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들이다. 각 영역별 문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보 환경이 변화에 따른 LAS의 수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Van Kampen(2004), 남태우, 박현영(2006), 박주범, 정동열(2010) 등의 새로운 안이 제기 되었고, 새로운 LAS를 도구로 사용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서,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2년 Bostick의 고안한 LAS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단, LAS가 개발된 지 오래 되었고, 그 사이 정보환경이 많이 변하여, LAS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도구로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크론바하 알파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의 알파 계수가 0.575로 비교적 낮았고, 다른 영역은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의 3문항과 '도서관에 대한 지식' 영역의 1문항을 제거하면 알파계수가 향상되고,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이 문항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 3문항, '도서관에 대한 지식'영역에서 1문항이었다. 문항 제거 후 각 영역별 알파 계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별 측정 내용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	측정 내용	문항 수
직원으로 인한 장벽	사서/학생보조원과의 의사소통, 접근시 발생하는 어려움, 사서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등	15문항
정서적 장벽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 도서관 이용의 즐거움, 도서관의 중요성 등	12문항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의 쾌적함, 편리성, 안전성	8문항
도서관에 대한 지식	도서관 지식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 편안함	5문항
기계적 장벽	도서관내 기계 조작과 사용능력 등	3문항

〈표 5〉 LAS의 크론바하 알파테스트 결과

도서관 불안 영역	항목 수(제거 항목 수)	(제거 후) 알파계수
직원으로 인한 장벽	15(0)	0.915
정서적 장벽	12(0)	0.767
안락함	5(3)	0.738
도서관 지식	4(1)	0.816
기계적 장벽	3(0)	0.840

www.kci.go.kr

3.1.2 성격 유형 측정 도구 - 한국형 BFI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한국형 BFI는 김지현 등(2011)이 고안한 것으로, John과 Srivastava(1999)의 BFI 44문항을 번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여 요인구조 일치를 위하여 일부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성격의 5요인별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축약하여 제작된 것이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의 성향이 강한 것이다. 단, 외향성 첫 번째 문항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는 역채점 문항이다. 축약된 15문항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분석과 같은 타당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피검사자들의 시간적 효율성과 간편성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각 요인별 3문항이 5요인 성격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타당화 과정은 다음 〈표 6〉과 같다.

이와 같이, 간편형 한국어 BFI는 연구용으로 사용되기에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5요인별 성격 유형 특성 15문항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6〉 한국형 BFI 타당화 과정

① 원 BFI 개발자로부터 척도 사용허가 받음.
② 2명의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독립적으로 한국어 번안 후 합의를 통해 적절한 번안 결정.
③ 다른 영어 능통자에게 원본 문항과 역번역 문항의 동일성 평정의 반복 과정 수행 후 최종 번안 문항 완성.
④ 최종 문항을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4개교에 발송하여 검사실시.
⑤ 수집된 자료의 탐색적 요인 분석 실시(요인 수를 원 BFI와 동일한 5로 고정, 낮은 요인 부하 문항 제거 과정 수행).
⑥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의한 문항들이 표본자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하여 적합도 확인.
⑦ ①~⑥에서 최종 선정된 간편형 한국어 BFI(15문항)을 대학생 250명 대상으로 설문 실시. 신뢰도를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실시. 알파값이 0.67~0.82로 양호한 신뢰도를 확인.
⑧ 관련 척도들(NEO-FFI, 우울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 실시. NEO-FFI와의 상관관계는 r=0.40~0.68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 그 외 척도와는 성격 유형 특성별로 일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7〉 BFI 성격 유형 문항

성격 유형	문항
신경증	나는 쉽게 침울해지는 사람이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외향성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역채점)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이다.
개방성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 나는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성실성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을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친화성	나는 사려 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www.kci.go.kr

3.2 데이터 수집 방법

조사는 B 대학교 인문학부 1학년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5일 수행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 이용 환경을 대학의 신입생이 갖는 여러 가지 낯선 환경 중 일부로 간주하였고, 그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인문학부 전공기초 '문헌정보학개론' 수강생들이고, 조사 시점은 입학 후 첫 주가 완료되기 전이며 따라서 대학 생활에 대하여 매우 생소한 상태이다. 두 가지 측면(성격 유형, 도서관 불안)의 측정 항목과 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모두 성실히 응하여 100% 회수하였다. 이전 선행 연구에 비하여, 사용된 표본의 수가 비교적 작고 표본들의 동질성, 대표성 수준 또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인 중 하나인 성격유형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외적인 조건과 문화에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이므로, 표본의 수나 표본의 대표성과 동질성 등이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성별 등에 대한 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4.0 K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도서관 이용 빈도 및 도서관 이용교육경험에 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응답자의 성격 5요인별 측정치, 도서관 불안 측정치를 항목별로 산출하였으며, 성격 특성 5요인과 도서관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기초 통계, 도서관 불안 측정 결과, 성격 유형 검사 결과,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4.1 응답자 기초 통계

응답자는 모두 49명으로, 남학생 23명(46.9%), 여학생 26명(53.1%)이었다.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하여 직접 방문 횟수와 홈페이지 접속 횟수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이용 빈도 관한 질문에서는 대학 입학 이전 3년 내의 이용과 관련하여 답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응답자의 15%인 25명이 일주일에 2-3회, 19명(38.8%)이 일주일에 1회 이하로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1주일에 4-5회 이상 방문은 4명(8.2%), 1주일에 6회 이상 방문은 1명(2.0%)으로, 전체 응답자의 89.8%가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홈페이지 접속과 관련해서는, 38명(77.6%)이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접속하였으며, 11명(22.4%)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접속한다 하였고, 일주

www.kci.go.kr

일에 4회 이상으로 접속한다고 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 결과는 오의경(2011) 연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1주일에 3회 이하 도서관 방문, 3회 이하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며, 대체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험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용교육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 전체 49명 중 9명(18.4%)만이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 역시, 대학 입학 후의 경험이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의 상황에 대하여 답하라고 하였다. 이전 오의경(2011) 연구에서 응답자의 81.8%가 도서관이용교육 경험이 없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남성, 여성이 각각 46.9%, 53.1%이며, 도서관이용빈도(도서관 방문, 홈페이지 접속)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응답자들이 최근 3년 사이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응답자들의 기초통계로 볼 때, 응답자들은 도서관이용경험과 이용교육경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도서관 불안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서관 불안 해소 방안이나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용자의 기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2 도서관 불안 측정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크론바하 알파테스트에 의해 제거된 4문항을 제외한 39문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도서관 불안 측정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도서관 불안 전 문항에 대한 평균은 2.57점이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을 측정했던 이전 연구들의 불안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장혜란, 오의경(2006) 연구의 2.55점,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만을 대상으로 한 오의경(2011)의 연구의 2.47점 보다는 약간 높다(이전 연구의 응답자들보다 약간 많은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대체로 같은 수준의 도서관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의경(2006)의 이전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때, 6년이나 경과하였지만 그 동안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불안 요소가 잠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적절한 불안해소 방안이

〈표 8〉 도서관 불안 영역별 기초 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원으로 인한 장벽	49	1.00	3.73	2.49	0.66358
정서적 장벽	49	1.00	3.67	2.72	0.55907
도서관 안락함	47	1.00	3.80	2.38	0.60778
도서관에 대한 지식	49	1.00	4.50	2.42	0.76751
기계적 장벽	49	1.00	4.67	2.91	0.78991
도서관 불안 전체	47	1.05	3.41	2.57	0.46742

www.kci.go.kr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불안의 5개 하위 영역별 점수를 볼 때, 가장 불안이 높은 영역은 '기계적인 장벽'으로 2.91점,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장벽' 2.72점, '직원으로 인한 장벽' 2.49점, '도서관 지식에 대한 장벽' 2.42점, '도서관의 안락함' 2.39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기계적인 장벽'으로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며, 상대적으로 '도서관 안락함'과 관련된 이유로 느끼는 불안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적인 장벽'으로 인한 불안이 다른 영역으로 인한 불안보다 크다고 보고되었던, 69명의 학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Bostick의 연구(1992), 339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했던 Shoham and Mizrachi의 연구(2001), 11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던 Jiao and Onwuegbuzie의 연구(2001), 그리고 22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던 Onwuegbuzie and Jiao의 연구(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4.3 성격 유형 측정 결과

성격 5요인별 3문항씩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BFI 측정 결과는 다음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요인별로 최솟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화성' 측정 점수가 3.6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경증' 3.48점, '외향성' 3.27점, '성실성' 3.25점, '개방성' 2.85점의 순서였다. 응답자들은 '친화성'이 높은 편이고, 우울하거나 예민한 '신경증' 또한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성격 5요인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개방성-외향성($r=0.489$, $p<0.05$), 성실성-외향성($r=0.400$, $p<0.05$), 외향성-친화성($r=0.347$, $p<0.05$), 성실성-친화성($r=0.286$, $p<0.05$), 개

〈표 9〉 성격 유형 요인별 기초 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경증	49	2.00	5.00	3.48	0.65617
외향성	49	2.00	4.33	3.27	0.57201
개방성	49	1.00	5.33	2.85	1.05642
성실성	49	2.00	5.00	3.26	0.69810
친화성	49	2.00	5.00	3.65	0.67154

〈표 10〉 성격 유형 5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성실성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0.129	- 0.115	0.489*	0.243*
성실성	-	0.019	0.400*	0.286*
신경성	-	-	- 0.016	0.090
외향성	-	-	-	0.347*

www.kci.go.kr

방성-친화성(r=0.243, p<0.05)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경증은 다른 4요인과 어떠한 의미있는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방성, 외향성과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으나 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신경증의 경향을 덜 보이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4.4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과의 상관관계

도서관 이용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 유형과 도서관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도서관 불안 39문항 전체와 성격 5요인간의 관계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성 요인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요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즉 도서관 불안은 신경증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r=0.372, p<0.05).

성격 5요인별로 분석했을 때, 개방성의 경우, '도서관 지식으로 인한 장벽'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44, p<0.05). 개방성향이 강할수록 도서관 지식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성의 경우,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도서관 불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실성 성향이 많을수록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도서관 불안은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253, p<0.05). 또한 성실성은 '도서관의 안락함' 부재에 따른 도서관 불안과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실성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서관의 안락함으로 인한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0.279, p<0.05).

신경증 성향의 경우, '직원으로 인한 장벽'(r=0.277, p<0.05), '정서적 장벽'(r=0.323, p<0.05), '도서관의 안락함'(r=0.366, p<0.05), '기계적인 장벽'(r=0.375, p<0.05)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경증 성향이 강할수록,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기계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친화성의 경우에는, '기계적 장벽'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r=0.263, p<0.05), 친화적 성향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기계적 장벽'으로 인한 도서관 불안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 상관관계

도서관 불안 / 성격 유형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도서관 불안 전체
개방성	- 0.039	- 0.119	- 0.008	**- 0.244***	0.154	- 0.121
성실성	0.014	**- 0.253***	**- 0.279***	- 0.180	- 0.043	- 0.223
신경성	**0.277***	**0.323***	**0.366***	0.080	**0.375***	**0.372***
외향성	0.045	0.084	- 0.081	- 0.122	0.114	- 0.075
친화성	0.053	0.127	0.110	0.026	**0.263***	0.101

www.kci.go.kr

〈표 12〉 도서관 불안과 신경증 문항 상관관계분석

도서관 불안 / 신경증문항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	도서관 불안 전체
쉽게 침울해진다	**0.361***	**0.432***	**0.431***	0.142	0.229	**0.460***
우울하다	0.188	0.233	**0.243***	0.029	**0.314***	**0.249***
걱정을 많이 한다	0.169	0.171	**0.277***	0.031	**0.450***	**0.258***

외향성의 경우는 도서관 불안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경증의 경우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이다.

신경증성과 도서관 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신경증성의 하위 3문항과 도서관 불안에 관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문항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하위 영역은 '도서관의 안락함'으로, 도서관의 안락함 부재가 신경증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문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영역은 '기계적 장벽'으로 신경증 성향 중에서도 우울감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기계로 인한 불안에 쉽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지식은 〈표 1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경증 성향과 관계가 없다. 신경증 성향이 도서관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도서관의 안락함' 부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성격 유형과 도서관 불안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B 대학 인문학부 1학년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을 각각 LAS(Bostick 1992)와 한국형 BFI(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도서관 불안은 평균 2.57점이었으며, '기계적인 장벽'으로 인한 불안 점수가 가장 컸으며(2.91점), '장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에 대한 지식', '도서관의 안락함' 순이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불안 수준은 이전 연구들(장혜란, 오의경 2005; 오의경 2011)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도서관 불안은 존재하며, 불안의 정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둘째, 한국형 BFI 측정 결과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이 3.65점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의 순서이다. 성격 5요인 상호간에는 '신경증'을 제외하고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요인보다 요인을 축소하여 정보활용교육이나 도서관 불안 해소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면, 신경증 성향을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요인을 하나로 묶어 모두 2개의 요인으로 둘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도서관 불안과 성격 5요인과의 상관관

www.kci.go.kr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불안과 신경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0.372$, $p<0.05$), 신경증 세부 문항과의 상관 분석에서는 세부 문항 모두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 중 '도서관 안락함'영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신경증성향이 강할수록 도서관 불안을 더 느끼며, 신경증 성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은 '도서관의 안락'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은 도서관 불안과 전혀 상관이 없고,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 중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에 대한 지식'은 각각 성격 요인의 신경성, 개방성과만 약한 관계가 있을 뿐, 대체로 다른 요인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 불안은 1986년 이후 꾸준히 측정되어온 도서관의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에만 그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학습습관, 자가인식태도, 사회적 상호의존성 등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개인차이가 존재한다는 공통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성격 유형이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이후에 개인 맞춤형 도서관 불안 해소 프로그램이 고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변인은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외에도 좀 더 많은 개인 성향을 나타내는 변인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변인에 의한 관계 분석이 이루어지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불안 척도로 Bostick의 LAS를 번역한 후, 신뢰도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Bostick의 LAS 이후 몇몇 연구들이 새로운 척도 개발에 고심해 왔으나, 수정되거나 개발된 척도들에 대한 일반화 과정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최근의 정보 활용은 특정 도서관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도서관의 정보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링크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척도의 개발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서관 불안 측정이 아닌 정보 불안 측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나현. 2005.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불안과 측정도구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2] 김은정.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우울증상과의 관계: 역기능적 도식과 회피대처의 매개효과.『한국심리학회: 임상』, 29(2): 407-425.

www.kci.go.kr

[3]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4]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5] 남태우, 황옥경. 2005. 도서관 불안 이론의 고찰.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2(3): 71-84.

[6]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7] 박도순, 하대현, 성태제. 2000. 5요인 인성검사 요강(고등학교용). 서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8] 박주범, 정동열. 2010.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53-371.

[9] 안창류, 채준호. 1997. NEO-PI-R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9(1): 443-473.

[10] 오의경. 2011.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의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23-137.

[11] 유태용. 1998. 성격의 5요인과 학업수행간의 관계.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98년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63-274.

[12] 유태용, 민병모. 2001.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을 예측하기 위한 5요인 성격모델의 사용가능성과 한계: 국내 연구결과의 통합분석.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14(2): 115-134.

[13] 이경임, 안창규. 1996. NEO-PI-R의 임상적 활용.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8(1): 65-79.

[14]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3(3): 205-221.

[15] 조애리. 1998.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6]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D. diss., Wayne State University.

[17]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8]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2): 160-165.

[19] Jiao, Q. G., Onwuegbuzie, Anthony J., & Lichtenstein, A. 1996.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2): 151-163.

[20] Jiao, Q. G., Onwuegbuzie, Anthony J., & Daley, Christine E.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6 895.

www.kci.go.kr

[21]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7.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The Library Quarterly*, 67(4): 372-389.

[22]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23]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9.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48(3): 140-147.

[24]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62 079.

[25]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2a. "Dimensions of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ew*, 51(2): 71-78.

[26]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2b. *Anxiety Expectation Mediation Model of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8 613.

[27]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4.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library anxiety: The role of computer attitud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3(4): 138-144.

[28]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Pervie, L. A., & John, O. P.,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102-138. New York: Guilford.

[29]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30] Van Kampen, Doris J.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5(1): 28-3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won, Na-Hyun. 2005. "Library anxiety and library anxiety scale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9-47.

[2] Kim, Eun-Ju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07-425.

[3] Kim, Joo-Han, Kim, Eun-Joo, & Hong, Se-Hee. 2006.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 243-264.

www.kci.go.kr

[4] Kim, Ji-Hyeon, Kim, Bok-Hwan, & Ha, Moon Sun. 201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Understanding People*, 32(1): 47-65.

[5] Nam, Tae-Woo, & Hwang, Ok-Gyung. 2005.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22(3): 71-84.

[6] Nam, Tae-Woo, & Park, Hyun-Young. 2006.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151-168.

[7] Park, Do-Soon, Ha, Dae-Hyun, & Seong, Tae-Je. 2000. *5 Yoin Inseonggumsa Yogang (Godeunghakkyoyong)*. Seoul: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econdary School Principals.

[8] Park, Joo-Bum, & Jeong, Dong-Youl.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353-371.

[9] Ahn, Chang-Gyu, & Chae, Joon-Ho. 199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443-473.

[10] Oh, Eui-Kyung. 2011.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gnition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123-137.

[11] Yoo, Tae-Yong.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Big 5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8 Yeoncha Daehoe Haksul Balpyo Nonmunzip*, 263-274.

[12] Yoo, Tae-Yong, & Min, Byung-Mo. 2001. "Predictability of Big-Five personality model to performance in a variety of settings and its limit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4(2): 115-134.

[13] Lee, Kyoung Im, & Ahn, Chang Gyu. 1996. "Clinical application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1): 65-79.

[14] Chang, Hye-Rhan, & Oh, Eui-Kyung. 2006.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library anxiety among academ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23(3): 205-221.

[15] Cho, Ae-Ri. 1998.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kci.go.kr

www.kci.go.kr